



의정부주보

발행인 손희승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유정률 베드로 (1836-1866)



유정률은 평남 대동군 울리면 답현리(畚峴里, 일명 논재)에서 태어나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직신을 팔며 생활하였다. 1864년경 교리를 배운 그는 서울로 올라와 장 시메온(베르뇌) 주교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극기하고 인내하는 생활을 하였고,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본 아내도 감동하여 입교하게 되었다.

1866년 초 박해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은 유정률은 친척들에게 세배하면서 자신의 순교를 예감한 듯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과연 그날 저녁, 이웃 마을 고둔리 공소에서 교우들과 함께 성경을 읽다가 체포되었다. 평양 감영으로 끌려간 그는 100여 명의 교우와 함께 문초를 받았는데, 다른 교우들은 배교하였지만, 그만은 굳건하였다. 이에 분노한 감사는 배교한 교우 100명에게 그를 때리라 명령하였다. 결국 유정률은 체포된 다음 날인 2월 17일, 수백 대의 매를 맞고 30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성화_장공선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22주일 ·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86(85).3.5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제1독서 신명 4,1-2.6-8

화답송 시편 15(14).2-3.7.3.4.5(◎1가)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2독서 야고 1,17-18.21-22.27

복음 환호송 야고 1,18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복음 마르 7,1-8.14-15.21-23

영성체송 시편 31(30).20 참조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만물의 영장이 행하는 공정과 정의



예루살렘의 성전산

이번 주일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의 축복대로(창세 1,28)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있는지, 임금의 직분인 공정과 정의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날입니다.

공정과 정의의 실천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언급되듯, 우선 임금의 직분입니다(2사무 8,15; 1열왕 10,9 등). 성경에서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그 의미하는 바가 거창할 것 같지만,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타자의 몫을 부당하게 빼앗지 않는 것, 특히 수탈당하기 쉬운 약자를 착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도 유다 임금에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착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22,3; 예제 18,5.7-8 등 참조). 공정과 정의는 위기에 처한 이의 상황을 개선해 주는 것인데, 여기엔 착취자를 처벌하고 제거하는 일도 포함됩니다(시편 72,2.4; 이사 11,4). 말하자면, 공정과 정의는 ‘약자 보호’와 관련된 덕목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느님께서 곤경에 빠진 약자를 구해 주셨듯(탈출 22,26; 시편 146,7-9 등) 지상의 임금도 피지배층에게 그렇게 하여 창조 질서를 유지하도록 받들고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 세상에서 임금과 같은 존재임은 창세 2,7에서 알려줍니다: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생명체가 바로 인간이며, 인간에게만 당신의 숨을 직접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그가 만물의 영장임을 표시하셨습니다. 유다 전승에 따르면, 천지창조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에서 시작되었고, 그 흙으로 주님께서 인간을 빚으셨다고 합니다. 창세 1장에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만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구절입니다(26-27절). 더구나 28절에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하느님의 구체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 창세 2,7은 사람이 한낱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 겸손도 배우게 합니다. 또한 시편 104편은 인간을 세상의 중심이 아닌 대자연의 일부로 묘사하여 다른 피조물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합니다. 창세기와 다르게 이 시편에서는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곧 인간은 피조물 세상에서 임금과 같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느님을 본받아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약자를 수탈하지 않는,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수탈당하기 쉬운 약자란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더 편하고 부유한 삶을 위해 다른 피조물의 몫과 생존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서 암시하듯, 세상의 피조물은 우리 인간에게 단순히 식량이나 도구가 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공존하는 운명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겪는 극심한 기후 변화는 생태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왜곡된 탓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제5장 더 나은 방식의 정치 ② - 국제적 권위(권력)의 필요

회칙 「모든 형제들」은 특정 이념을 목적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이용하거나 유력한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돌보는 일부 대중주의와 자유주의 형태의 정치를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취약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의 ‘참여와 연대’를 도모하여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는 참된 민주적 경제제민(經世濟民)의 회복을 호소합니다(154-169항).

이어서 회칙은 국제적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에서의 두 가지 시대적 징표를 탐구하면서 국제적 권위(권력)의 필요성을 성찰합니다(170-175항). 첫째, 세계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었음에도 그 교훈을 살리지 못했으며, 오히려 “개인주의”를 더 재촉하고 “통합”을 더 약하게 하며 “강한 자들을 위한 자유”를 증대시켰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릇된 권리”와 “광범위한 취약 영역”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회칙은 “정치, 경제, 국방, 기술 분야에서 힘(권력)의 실효적 분배”와 “권리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국제) 사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독립과 주권 행사를 무시하는 몇몇 나라의 “절대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구체적 방법이 됩니다.

둘째, 오늘날 주로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경제 및 금융 영역이 각 나라의 정치를 압도하는 추세로 인해 “국민 국가(nation state)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세에선 “적어도 세계 차원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빈

곤과 굶주림을 척결하며, 기본적인 인간 권리들을 확실하게 보장할 힘을 갖춘 더 강하고 실효적으로 조직된 국제기구들”을 증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교황은 “국가들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개념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유엔(UN), 경제 기구, 국제 금융의 개혁이 필요하며, 몇몇 나라가 “제멋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념을 바탕으로 약한 나라들에 문화를 강요하거나 그 기본적 자유를 제약하지 못하게 하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요청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보편적 형제애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유엔의 활동이 정의가 핵심 조건임을 인정하는 “법치(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정치)의 발전과 촉진”으로 드러나야 하고, 사법적 규범을 구성하는 유엔의 “협상, 중재, 조정”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회칙 「모든 형제들」은 “시민사회 내의 많은 단체와 기구”(하위의 수준)가 국제기구들(상위의 수준)을 도와서 세계가 안고 있는 복잡한 정세에서의 조정 결여와, 기본적인 인간 권리들과 특정 집단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주의(注意) 결여를 훌륭하게 보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성의 원리’ 적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단체와 기구들은 공동선의 실현에 훌륭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들은 자주 영웅적 자질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위대한 일을 할 역량이 있음을 드러냅니다”(175항). 🌐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더운 날, 딸이 바람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스커피를 사 들고 뒤따릅니다. 바람이는 9년 전 우리 식구가 된,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고유의 특성상 실외 배변을 해야 하기에 하루 두 번 산책하러 나갑니다. 덕분에 두 딸이 걷기 운동도 하니 감사한 일이지요. 공원 안쪽으로 걸어 내려가니, 바람이가 저를 보고는 먼 길 다녀온 엄마를 반기듯 꼬리를 흔들며 다가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간간이 스치는 여름 바람에 제 몸을 맡기니, 이내 작은 행복이 따라옵니다. 바람이가 더위에 지쳤는지 숨을 헐떡입니다. 딸이 바람이를 일으키려고 목줄을 당기려는 순간, 제가 먼저 일어나 수돗가로 갔습니다. 컵에 물을 가득 담아 바람이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물 들이켜는 소리가 대단합니다. 돌아오던 길에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바람이를 수돗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려고 했거든.”

딸은 바람이 대신 제가 수돗가로 가서 물을 떠다 먹인 게 인상 깊었나 봅니다. 자기는 생각도 못 했다며 “그런 방법이 있었네.”라는 말을 연신 읊조렸습니다. 공원 출구 오른쪽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기도 좋고 물 흐르는 소리가 시원하고 정겹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딸이 말합니다. “오,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다. 새들이랑 고양이도 물을 마실 수가 있겠네.” 그 순간 저는, “어머, 정말 그러네. 난 그런 생각 미처 못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희 모녀는 사소한 두 상황을 마주하면서,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기대하거나 자기 생각만 주입하려 했다면,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벤치에 앉아 맛본 여름 바람의 그 결처럼, 우리의 대화는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섬세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걸 너는 알고 있었구나.’ 했던 나의 반응과 ‘나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엄마는 알고 있었네.’ 하는 딸의 반응은 사실 같은 맥락이었던 거죠. 나에게 없는 것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감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겸손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 모녀는 진돗개 바람이와 함께 걸으며 ‘섬세함’이라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뭔가를 더 채우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의 ‘섬세함’을 놓쳐버리는 자신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짝 낚 손의 힘을 풀게 됩니다. 저희에겐 그 날이 그랬습니다. 각자의 마음 안에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느낌들이 있는데, 너무 선불리 판단하거나 왜곡하는 건 아닌지 성찰해 봅니다. 저장해두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 방법이 있었네.” 말 할수록 기분 좋아지는 말입니다. ☺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9/6(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교구
소식**

한마음 성경공부 1단계 _ 구약 인물들과의 영성적 만남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회비 12만원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www.ucatholic.or.kr - 교구소식] 참조

신청 ▶



파주 EXODUS 사회교리 특강

주 제	강사	날짜	시간	장소
사회교리의 역사, 사회복지와 사회사목	박성욱 신부	9/21(토)	19:30 ~ 21시	정발산 성당 강당
이주의 시대, 난민은 누구인가?	김향수 신부	10/19(토)		
기후 위기의 시대, 창조 질서 보전	김승연 신부	11/16(토)		
전쟁의 시대, 평화의 길	강주석 신부	12/21(토)		

문의 031-948-8105~6

의정부교구 청년 도보순례 참가 모집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루카 24,15)

일시 10/5(토)~6(주일)

여정 의정부 신앙의길

접수 9/15(주일)까지

회비 7만원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

신청 ▶



제33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공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10/18(금) 19시 ~ 20(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48 가정사목부

신청 ▶



[갤러리 평화] 하계 휴관

기간 9/14(토)~21(금)

문의 031-877-9153 갤러리 평화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9/6(금)까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유창준, 문선영 히야친타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전신자 성경 읽기

9/1(주일)~7(토) : 루카 20,1-19



9/28(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담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2024 한마음 도보순례 피정

일시: 9/11(수)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양주순교성지
대상: 도보순례를 좋아하는 모든 신자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 회비: 2만원
신청: 온라인 또는 전화
문의: 031-840-0018 (내선번호 201)
www.hanmaum84.com

2024 한마음 밤(粟)이 있는 피정

일시: 9/20(금)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
주제: 밤(粟)이 있는 피정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 회비: 1만원
문의: 031-840-0018 (내선 201)
www.hanmaum84.com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9/13(금) 10시~15:30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다네이영성수련피정: 10/25(금)~27(주일)
고3수험생 부모님피정: 11/14(목) 10시~15시
대침목피정: 12/11(수)~14(토)
노베나신청: 11/2(토)~10(주일) 9일 동안 미사와
위령기도를 봉헌해드립니다.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생태순례: 9/20(금)~22(주일), 9/28(토)~30(월),
10/28(월)~30(수)
추자도포함: 10/7(월)~10(목), 11/3(주일)~6(수),
11/18(월)~21(목)
연말연시(한라산): 12/30(월)~1/2(목)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엄마와 딸 피정

일시: 9/28(토) 14시 ~ 29(주일) 15시
장소: 여주 사도의 모후 집
회비: 1팀 15만원
문의: 010-7251-1908

첫토요 신심 미사

일시: 9/7(토) 09:20~12시 [10시 미사]
장소: 일산 성당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57)
문의: 010-6303-8515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심 미사

일시: 9/6(금) 16시 (성시간 15시),
19:30 (성시간 18:30)
장소: 고양시 덕양구 삼막2길 16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본원 (신청 필수)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매달 첫토요 성모신심 피정: 9/7(토)
매달 성모님의 날 기도회 미사: 9/13(금) [매월 13일]
이정순 수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매주(목) 기도 피정: 이한택 주교
시간: 10시~14시 미사
문의: 031-952-6324 파티마 평화의 성당

목요 영성치유 아카데미

일시: 9/5부터, 매주(목) 10:30~17:30
장소: 지혜의샘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강사: 김성대 신부
이상기, 김완식, 고영민, 한영임 회장
문의: 010-3248-9705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9/6(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생명의 나무
강사: 김영철 신부(전국 및 교구 담당사제, 4지구장)
문의: 010-2127-0032

8지구 영성피정 - 금촌2동 성당

일시: 9/3(화) 12:30~16시
강의 및 미사: 윤민재 베드로 신부
문의: 010-9239-8926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9/21(토)~22(주일), 10/19(토)~20(주일)
3박 4일: 9/26(목)~29(주일), 10/24(목)~27(주일)
8박 9일: 10/7(월)~15(화), 11/14(목)~22(금)
40일: 10/4(금)~11/12(화), 12/14(토)~1/22(수)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노고산 성지 월례미사

일시: 9/5(목) 11시 [매월 첫째 목요일]
장소: 서강대학교 성 이나시오 성당
문의: 02-705-8161 교목처
※ 미사 후 성체현시가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피정

일시: 9/23(월) 15시 ~ 29(주일) 13시 [6박7일]
장소: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강사: 이영근 아오스딩 수사
내용: 렉시오 디비나의 원리와 실제
문의: 010-5230-2986

렉시오 디비나와 첫토요 신심미사

일시: 9/7(토) 14시~17시 [무료]
장소: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강사: 이영근 아오스딩 수사
문의: 010-5230-2986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연말연시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9/7(토)~9(월), 9/26(목)~28(토),
10/14(월)~16(수)
추자도포함: 9/11(수)~14(토), 10/5(토)~8(화),
11/25(월)~28(목)
문의: 064-796-4182, 02-773-1455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9/3 오태순 신부, 9/10 김효임 수녀
1,000송이 묵주기도: 매월 첫째(월) 12:30~17시
장소: 명동가톨릭회관 2층 205-2호 1강당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매월 첫화요 오후 피정 - 토당동 마리아니스트센터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일시: 9/3(화), 10/1(화) 14시~16:30
장소: 마리아니스트 센터 (덕양구 호수로 76-13)
강사: 장희성 프란치스코 신부(마리아니스트센터 관장)
내용: 묵주기도, 성체조배, 영성강의, 미사, 안수
문의: 010-9585-6283 (무료 피정)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성심수녀회	9/21(토) 14시~17시	성심수녀회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성소담당)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메르세데스 성모님 영성에 응답하고 싶은 청년		010-4627-0295 (손 카타리나 수녀)
	의정부가르멜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907 기후정의행진 거리미사

일시: 9/7(토) 13시
장소: 논현역 4번 출구 앞 (7호선, 신분당선)
주례: 강우일 베드로 주교
문의: 031-850-1492 생태환경위원회
※ 순교와 불타는 지구를 상징하는 붉은 색 옷이나 소품을 착용해주세요.

김대건 신부님과 새남터 순교자들을 위한 현양미사

날짜: 9/21(토)
장소: 순교성지 새남터 기념성당
특강: 14시, 원종현 야고보 신부
미사: 15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과 사제단
순교자 현양 음악회: 16:30, 소프라노 강혜정
문의: 070-8672-0327 새남터 성지안내소
※ 10인 이상 단체는 사전 전화 접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9/27(금)~10/5(토), 11/1(금)~9(토)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10/11(금)~13(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9/20(금)~23(월), 10/18(금)~21(월), 11/15(금)~18(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및 성령 세미나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 (중식무료)
일시: 9/2(월) 10시~16시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 세미나
일시: 9/7부터, 매주(토) 12시~17:30 [7주간]
회비: 2만원 (교재비 별도, 중식 무료)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2024 한티가는길 행사

일시: 10/26(토) 09시~16시
인원: 2,000명 선착순 [1만원, 중식포함]
주최: (사)한티 (한티순교성지)
신청: hantigil.hanti.or.kr

전진산 영성센터 9월 특강 - 강우일 주교

일시: 9/24(화) 14시~16시
장소: 명동 전진산 영성센터
주제: 제주가 나에게 건네온 이야기
문의: 02-726-0700, www.jjscen.or.kr

단기 선교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온라인

일시: 11/4(월)~14(목) 19시~21시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수도자, 사제
진행: 실시간 온라인 교육
회비: 10만원
문의: 02-3673-2528 한국외방선교회

행신2동 성당 관리인 채용

자격: 고졸 이상, 세례받은 교우
업무: 시설관리, 영선관리, 경비 등
접수: 9/25(수)까지
문의: 031-979-4071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5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 (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접수: 9/30(월)~10/10(목), 전형일: 10/19(토)
문의: 02-705-8668, http://gsot.sogang.ac.kr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5 신입생 수시 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취업률 79.8% 전국 6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학과, 자율전공학부
접수: 9/9(월)~13(금)
문의: 043-270-0100, 0119

2024 가을 배동제자교육

날짜: 10/3(목)~5(토)
장소: 성령신교수녀회 (종로구 혜화역 인근)
강사: 예수살이공동체 길벗사제
주제: 소비사회에서 그리스도 따르기
내용: 갈릴레아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적 인생관을 찾아 떠나는 3일의 여정
문의: 02-3144-2144, 010-6750-2144

안내 · 기타 ▶▶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된장(1kg) 2만원
연임밥 1만원(택배가능)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운영: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교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 여행사 성지순례

10/23(수) 발칸 3개국, 메주고리에, 헝가리 (12일)
12/20(금), 1/17(금)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1/17(화), 2/14(금),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1/17(화) 이탈리아 (희년 전대사) 12일
3/10(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문의: 010-5235-3533, catholictravel.co.kr
가톨릭회관 619호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2/3(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45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일시: (월~금) 10시~16시
내용: 심리, 가족갈등 (전화 상담)
문의: 02-990-9366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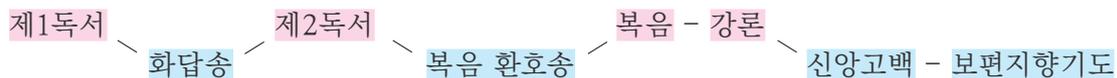


말씀 전례 (Liturgia Verbi)

미사는 '시작 예식'을 마치고 '말씀 전례'에 이르러 본 예식에 들어갑니다. 말씀 전례의 옛 명칭은 '예비 미사' 또는 '예비신자 미사'였습니다. 예비미사라는 말은 미사의 본(本) 부분으로 간주되던 '봉헌미사'를 준비하는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비신자 미사라는 말은 과거 세례받지 않은 이들의 경우 말씀 전례까지만 참석하였고, 성찬 전례는 세례받은 신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기에 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봉헌미사를 '신자미사'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전례헌장」(특히 56항)을 비롯해 여러 문헌에서 말씀 전례의 명칭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씀 전례라는 명칭은 대부분 말씀으로 이뤄진 전례의 특징을 잘 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단지 독서와 복음(강론) 같은 주님의 말씀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화답송, 복음 환호송, 신앙고백 같은 공동체의 노래와 기도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 전례는 하느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말로 구성된 전례입니다.

말씀 전례는 하느님께서 한자리에 모인 공동체에 말씀하시고, 공동체는 그 말씀에 화답하는 전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독서와 복음, 그리고 이 말씀에 화답하는 '독서들 사이의 노래', 곧 화답송과 복음 환호송은 말씀 전례의 골격을 이룹니다. 그 뒤에 말씀의 내용을 해설하는 강론이 있고, 말씀 전례를 끝맺는 신앙고백과 보편지향기도가 이어집니다. 말씀 전례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말씀 전례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공동체가 화답하는 '대화' 형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공동체는 화답송으로 응답합니다. 제2독서에서 다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공동체는 복음 환호송으로 응답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제가 그 말씀을 강론으로 풀이하면, 공동체는 신앙고백과 보편지향기도로 화답합니다.

이러한 대화 형식은 모든 기도나 전례의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전례나 기도는 일방통행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공동체는 듣기만 하거나, 반대로 하느님은 듣기만 하시고 공동체 홀로 말하는 독백 형식은 올바른 기도나 전례가 아닙니다. 말씀 전례는 선포와 화답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주님과 공동체가 만나는 자리이기에 대화 형식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순서와 구조를 생각하면서 말씀 전례를 준비하고 참여한다면, 미사 중에 생생히 재현되는 구원의 잔치를 더 깊이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1 style="text-align: center;">행 주 성 당</h1>  <p style="text-align: center;">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9: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하느님의 집 2차 헌금

오늘은 교구 내 성전 부지 마련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본당공지

▣ 홍유선 임마누엘 주임 신부님 교구 사제 연수

일 시: 9월 10일(화) - 11일(수)
사제 연수 기간 동안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봉성체

일 시: 9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9월 형제회 월례회의

일 시: 9월 8일 주일 교중 미사 후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접수

합동 위령 미사 시간: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실 분은 9월 15일 주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03일 (그레고리오): 윤병수
04일 (로사): 류다빈

▣ 9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이경섭(안토니오), 윤대병(마리아), 장홍준(공사가)
류수안(미카엘), 이영득(로렌시아), 장병(미카엘)
전요한, 김부성(요한)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9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례

▣ 9월 성시간

일 시: 9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많은 분 들이 참석하시어 주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9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우리들의 정성 (8월 19일 ~ 8월 25일)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6건	730,000원
주 일 헌 금		924,000원

▣ 감사 헌금

백현미	10,000원	조경숙	10,000원
-----	---------	-----	---------